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73호 [루게 제23125호] 주체99(2010)년 6월 22일 (화요일)

붉은기를 높이 들고

위대한 장군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널리 보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를 로씨야 울라지보스크 출판사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4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장은 발행식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는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이 로골화되는 속에서 조선인민을 용감하고 지혜로운 인민으로 더욱 튼튼히 키웠다. 또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선군정치야말로 강성대국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게 하는 근본원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를 로씨야의 친선 및 협조발전회의에서 출판하였다.  
협회위원장 세묘노브는 발행식에서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쪽에 즈음하여 그이의 로작을 출판하고 발행식을 진행하는 것은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로씨야의 친선 및 협조발전회의는 앞으로도 백두산 3대장군의

위대성 선전을 더욱 강화하여 로조 친선관계발전에 적극 기여할것이다. 우리는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건국하시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이끄실것을 기쁘게 환영한다. 로조 친선관계발전회의는 앞으로도 백두산 3대장군의 위대성 선전을 더욱 강화하여 로조 친선관계발전에 적극 기여할것이다. 우리는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건국하시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이끄실것을 기쁘게 환영한다. 로조 친선관계발전회의는 앞으로도 백두산 3대장군의

## 사설 경제선동의 북소리 높이며 총진격 앞으로!

지금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의 불길이 날이 갈수록 더욱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총공세의 화력을 집중하는것이 중요하다. 현재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더 높이 울리는 것은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정을 끊임없이 앙양시켜 대고조전군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중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로 불리워주기 위하여서는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혁명적대고조는 사상선력의 대고조이다. 주체의 사상론을 틀어쥐고 인민생활대고조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는 우리 당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경제선동은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힘있게 불태워주는 강력한 정치사업이다. 지난해 150일전투와 100일전투기간 금속공업과 전력공업, 석탄공업,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선행부문의 기초공업부문에서 전례없는 생산적양양이 이룩되고 인민경제의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된것은 강력한 정치사업, 경제선동공세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올해 1.4분기과 2.4분기에도 전국도처에서 경제선동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김책철원합성기업소와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주요단위들과 금공업, 농업부문에서 비약의 열풍, 증산의 불길이 세계를 타올랐다. 전사들을 돌격으로 부르는 나팔소리와 같이 근로자들을 투쟁과 혁신에 고무추동하는 경제선동공세를 전진적으로 벌려나가는 길에 인민생활대고조의 승리가 있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격동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선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오늘의 총공세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양상을 일으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제선동방향과 대상을 바로 정하고 여기에 경제선동의 화력을 집중하는것이 중요하다. 현재 시기 경제선동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을 돌파하는것이다. 우리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대고조의 주공전선인 경공업과 농업부문에서 경제선동의 포성을 더욱 세차게 울려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당에서 힘을 넣고있는 금속공업, 발전건설공업, 화학공업 건설장들과 탄광, 광산, 기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중요부문들과 최첨단과업이 벌어지는 전투장들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대중에 심금울리고 전투사기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의 충실성의 열도가 당의 경제강국건설 구상을 꽃피우는 실천투쟁에서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선동을 정책적대고조로 추진하면 서도 실득적있게 생산한 내용을 가시도 감동적으로 하여야 한다.  
경제선동은 근로자들을 당의 경제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해 파업수행에로 한결같이 불태워야 하는데 기본목적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당의 정확한 경제건설선과 정책이 있고 고난과 시련을 헤치며 억척같이 다져온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다.  
우리는 경제선동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경제정책이 야말로 가장 정당하고 현실성있는 정책이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는데 앞날에 반드시 경제강국이 될것임을 믿고 있다.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길에 인민생활대고조의 승리가 있다.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내용을 전개하며 모든 경제선동활동을 정책적대고조로 추진하여, 사람들의 심장을 울릴수 있게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안배하여 하야 한다. 당의 령도밑에 이룩되고있는 자랑스러운 성과들, 주체공업의 위력을 널리 선전하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어야 한다.  
모든 선동력량과 수단,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경제선동의 집중포화를 들이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여러가지 선전선동수단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선전선동, 선동원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또한 경제선동을 대담하고 용이하게 추진하여 근로선동, 직관선동, 예술선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선동형식과 방법을 출세 배합하여 힘있게 기동성있게 벌려나가는 길을 굳게 만들어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 경제선동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아흔한 과업이 나서고 난만이 막아나설수 없는 혁명의 지휘선원이라는 자각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대고조전투장들을 들끓게 하는 우월한 정치사업이다. 경제선동대중을 강화하여 모든 전투장들이 혁명적분위기로 부풀도록 하고 생산자대중이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창조할수 있다. 중앙과 지방의 예술단체에서 경제선동대를 무어 당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시하는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파견하여 경제선동대중을 활발히 벌려나도록 하여야 한다. 성, 중앙기관과 야말로 가장 정당하고 현실성있는 정책이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는데 앞날에 반드시 경제강국이 될것임을 믿고 있다.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길에 인민생활대고조의 승리가 있다.

정황에 맞게 막장이나 건설현장, 기대열이나 포진에서 경제선동대중을 기동적으로 벌려야 한다. 경제선동을 인민군대식으로 해나가야 한다.  
지금 최전방건설현장에 흐르는 시간이 그대로 창조와 비약의 분과로 되돌아가는것은 인민군대식선동의 전진력과 생활력을 잘 보여주고있다.  
경제선동은 인민군대식처럼 마디마디 사람들의 심장을 울릴수 있게 감동적으로, 열정적으로 하여야 하며 높은 전투성과 호소성이 맥박치게 하여야 한다. 근로선동을 하도록 중심을 살려 내용을 그 자리에서 새겨지게, 화선식으로 피가 끓고 하고 예술소조활동도 군대맛이 나게, 생기발랄하게 하며 속도감있게, 예술선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선동형식과 방법을 출세 배합하여 힘있게 기동성있게 벌려나가는 길을 굳게 만들어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 경제선동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아흔한 과업이 나서고 난만이 막아나설수 없는 혁명의 지휘선원이라는 자각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대고조전투장들을 들끓게 하는 우월한 정치사업이다. 경제선동대중을 강화하여 모든 전투장들이 혁명적분위기로 부풀도록 하고 생산자대중이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창조할수 있다. 중앙과 지방의 예술단체에서 경제선동대를 무어 당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시하는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파견하여 경제선동대중을 활발히 벌려나도록 하여야 한다. 성, 중앙기관과 야말로 가장 정당하고 현실성있는 정책이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는데 앞날에 반드시 경제강국이 될것임을 믿고 있다.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길에 인민생활대고조의 승리가 있다.

## 주체사상전국토론회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세계화》에 대처하여 전인류의 자주성에 관한 사상을 더욱 힘있게 선전하자》라는 주체의 우크라이나주체사상전국토론회가 15일 키예브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다.  
토론회에는 우크라이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회들의 전국조정위원회, 기자, 문화인들의 《주체의 태양》 김일주의 연구협회, 마리우폴시 선군정치연구회를 비롯한 주체사상, 선군정치연구회 책임자들과 성원들 그리고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회 국제연합 총서기가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회들의 전국

조정위원회 위원장 니콜라이 폴리슈코의 보고에 이어 여러 인사들이 토론하였다.  
보고자는 주체사상은 세계자주화의 길을 밝혀주는 유일의 지도적지침이다. 세계자주화에 관한 리론은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책동에 맞서 과감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조선인민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는것은 주체사상신봉자들의 응당한 도리이며 기본 사명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회자들은 일치하게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힌 주체사상은 오늘 세계적범위에서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민족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투쟁의 기치로 된다고 언급하였다.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조선의 현실에 탄복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령도자가 위대하면 작은 나라 인민도 존엄 높은 인민으로 될수 있다고 격찬하였다.  
그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은 《세계화》를 때드는 제국주의자들에게 호된 타격을 안기고있다 하면서 우크라이나도 력사적조건과 전통에 맞게 자기의 발전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선언 《〈세계화〉에 대처하여 전인류의 자주성에 관한 사상을 더욱 힘있게 선전하자》가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적들의 무모한 도발책동을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로 짓뭇개버리자 총공격전으로 부르는 화선식정치사업 석탄생산성과 계속 확대

량강도당위원회에서 경에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 관철을 위한 총공격전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태워주는 조직적사업들을 힘있게 벌려 온 도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정치사업, 사람과 사업을 잘하여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창조적열성과 적극성을 높이 발휘하여 자기앞에 맡겨진 경제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디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선군정치를 결사관철하기 위한

조직적사업들을 전투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특히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을 비롯한 도안의 혁명적지적, 혁명사적지들을 더 잘 꾸리고 보존관리함으로써 혁명사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고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이와 함께 현지지도단위들에서 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전진적으로 벌리고있다.  
혜산선발공장에 나간 도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은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데 대하여 주신 말씀을 종업원들속에 깊이 해설해주고 당보에 실린 혁명일화 《량강도

출장화》와 관련한 가슴뜨거운 사연을 되새겨주면서 그들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여러가지 질 좋은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은 혜산강철공장 로동자들에게 들어가 경에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깊이 인식시키면서 지방의 풍부한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철 생산체계에 의한 철강재생산을 서 보다 큰 양상을 일으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도 도안의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열광을 생산하여 보내주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대흥단감자가공공장도 삼지연장공장에 내려간 도당위원회 일군들은 로동자, 기술자들과 깊이 들어가 화선식정치

사업들을 활발히 벌리면서 그들이 제품의 질을 높이는 한편 일터의 위생문화환경을 계속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며 식료가공설비들의 현대화에 대한 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도록 적극 불태워주고있다.  
백암군에 임박하고있는 대규모의 감자농작업장에 달려나간 도당위원회일군들은 앞날에 메고 돌격대들과 함께 모든 포진을 구역포진으로 만들고 감자농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며 농업근로자들이 배스를 타고 일터로 오갈수 있게 포진 도로를 새로 내기 위한 공사를 앞장에서 이끌어가고있다.  
백암군의 감자산지에서 일터에서 살림집건설에 나간 도당위원회일군들은 인민군대정치

일군들처럼 어렵고 힘든 일에 먼저 어깨를 들이밀면서 온 전투장에 혁명적정당과 기백이 차 넘치게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해산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한 사람같이 떨쳐나 서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뉘비움을 일으키고있다.  
경에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 관철을 위한 정치사업은 김정숙사범대학과 대흥단군, 삼지연군을 비롯한 여러 단위와 지역들에서 계속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적들의 무모한 전진도발책동을 대고조의 불길로 짓뭇개버릴 일념으로 날이날마다 자랑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미제와 리명박적책동의 무분별한 반공외국대결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밟아 버리는 기산고의 막강마디에서 석탄중심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리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채취공업에 힘을 넣어 석탄생산량을 늘려야 화려발전의 선진도 만부하로 들릴수 있습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석탄 생산선투로 들끓는 경마당에서 나가 이신작적의 모범을 보이면서 생산과도 지위를 쟁고 들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 참모부의 일군들은 탄광들에 필요한 자재와 부수품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힘을 넣고있다. 련합기업소안의 탄광들마다

에서 석탄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2. 8경동청년탄광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받들고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경마당에 양면 열의에 맞게 들끓는 현장에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고있다. 탄광의 일군들은 늘 막장에 들어가 탄부들속에 골전을 확고히 앞세워 석탄생산량을 줄기차게 내밀며 대한 공동호의 전투적과업을 깊이 해설해주면서 걸린 문제를 알아보고 대책을 제때에 세워나가고있다. 또한 경, 증대, 소대별사투의 경쟁을 조직하여 교대별 석탄생산량을 훨씬 늘려나가고도 하고있다. 1경, 2경, 3경, 7경, 12경, 청년경 등 모든 경의 증대들에서 사투적경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다음교대를 도와주는 집단주의기풍이 높여 발휘되어 매일 많은 석탄을 생산하는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신창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생산조건을 마련하면서 석탄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경마당에 들어가 이신작적의 모범으로 탄부들의 열의를 적극 불태워주고있다. 탄광의 3경, 5경을 비롯한 경, 증대들에서는 5월에 이어 이달에도 새로운 목표를 돌파하며 기세 좋게 내달리고있다.  
명대탄광의 1경, 2경, 천성청년탄광의 2경, 3경, 5경의 탄부들도 서로 돕고 이끌면서 매일 맡겨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석탄생산량이 늘어나고 작업환경이 변하는데 맞게 작업능력을 더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전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 불라는 의지와 신념으로 뚝어번지는 어랑천발전소건설장 본사기자 장철일 찍음

상반년인민경제계획을 넘쳐수행한 선교편직공장에서 150여명의 연간계획완수자들이 나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상반년기간에 이처럼 많은 연간계획완수자들이 배출된것은 공장이 생긴이래 처음이다. 이것은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공동사투의 진투호소를 높이 받들고 년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이들이 추켜든 혁신의 봉화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리워주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고조의 앞에는 1가공직장 김원호, 문대옥, 2가공직장 김광수, 자수작업반 박영옥, 제단직장 김인숙공무들이 서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들은 올해에 편직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년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이들이 추켜든 혁신의 봉화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리워주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고조의 앞에는 1가공직장 김원호, 문대옥, 2가공직장 김광수, 자수작업반 박영옥, 제단직장 김인숙공무들이 서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들은 올해에 편직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년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이들이 추켜든 혁신의 봉화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리워주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고조의 앞에는 1가공직장 김원호, 문대옥, 2가공직장 김광수, 자수작업반 박영옥, 제단직장 김인숙공무들이 서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들은 올해에 편직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년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이들이 추켜든 혁신의 봉화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리워주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고조의 앞에는 1가공직장 김원호, 문대옥, 2가공직장 김광수, 자수작업반 박영옥, 제단직장 김인숙공무들이 서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들은 올해에 편직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년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이들이 추켜든 혁신의 봉화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리워주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고조의 앞에는 1가공직장 김원호, 문대옥, 2가공직장 김광수, 자수작업반 박영옥, 제단직장 김인숙공무들이 서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들은 올해에 편직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년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이들이 추켜든 혁신의 봉화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리워주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고조의 앞에는 1가공직장 김원호, 문대옥, 2가공직장 김광수, 자수작업반 박영옥, 제단직장 김인숙공무들이 서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들은 올해에 편직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년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이들이 추켜든 혁신의 봉화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리워주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고조의 앞에는 1가공직장 김원호, 문대옥, 2가공직장 김광수, 자수작업반 박영옥, 제단직장 김인숙공무들이 서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들은 올해에 편직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년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이들이 추켜든 혁신의 봉화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리워주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고조의 앞에는 1가공직장 김원호, 문대옥, 2가공직장 김광수, 자수작업반 박영옥, 제단직장 김인숙공무들이 서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들은 올해에 편직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년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이들이 추켜든 혁신의 봉화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리워주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고조의 앞에는 1가공직장 김원호, 문대옥, 2가공직장 김광수, 자수작업반 박영옥, 제단직장 김인숙공무들이 서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들은 올해에 편직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년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이들이 추켜든 혁신의 봉화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리워주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고조의 앞에는 1가공직장 김원호, 문대옥, 2가공직장 김광수, 자수작업반 박영옥, 제단직장 김인숙공무들이 서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들은 올해에 편직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년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이들이 추켜든 혁신의 봉화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리워주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고조의 앞에는 1가공직장 김원호, 문대옥, 2가공직장 김광수, 자수작업반 박영옥, 제단직장 김인숙공무들이 서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들은 올해에 편직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년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이들이 추켜든 혁신의 봉화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리워주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고조의 앞에는 1가공직장 김원호, 문대옥, 2가공직장 김광수, 자수작업반 박영옥, 제단직장 김인숙공무들이 서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들은 올해에 편직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년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이들이 추켜든 혁신의 봉화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리워주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고조의 앞에는 1가공직장 김원호, 문대옥, 2가공직장 김광수, 자수작업반 박영옥, 제단직장 김인숙공무들이 서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들은 올해에 편직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년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이들이 추켜든 혁신의 봉화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리워주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고조의 앞에는 1가공직장 김원호, 문대옥, 2가공직장 김광수, 자수작업반 박영옥, 제단직장 김인숙공무들이 서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들은 올해에 편직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년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이들이 추켜든 혁신의 봉화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리워주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고조의 앞에는 1가공직장 김원호, 문대옥, 2가공직장 김광수, 자수작업반 박영옥, 제단직장 김인숙공무들이 서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들은 올해에 편직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년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이들이 추켜든 혁신의 봉화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리워주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고조의 앞에는 1가공직장 김원호, 문대옥, 2가공직장 김광수, 자수작업반 박영옥, 제단직장 김인숙공무들이 서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들은 올해에 편직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년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이들이 추켜든 혁신의 봉화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리워주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고조의 앞에는 1가공직장 김원호, 문대옥, 2가공직장 김광수, 자수작업반 박영옥, 제단직장 김인숙공무들이 서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들은 올해에 편직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년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이들이 추켜든 혁신의 봉화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리워주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고조의 앞에는 1가공직장 김원호, 문대옥, 2가공직장 김광수, 자수작업반 박영옥, 제단직장 김인숙공무들이 서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들은 올해에 편직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년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이들이 추켜든 혁신의 봉화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리워주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고조의 앞에는 1가공직장 김원호, 문대옥, 2가공직장 김광수, 자수작업반 박영옥, 제단직장 김인숙공무들이 서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들은 올해에 편직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년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이들이 추켜든 혁신의 봉화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리워주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고조의 앞에는 1가공직장 김원호, 문대옥, 2가공직장 김광수, 자수작업반 박영옥, 제단직장 김인숙공무들이 서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들은 올해에 편직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년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이들이 추켜든 혁신의 봉화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리워주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고조의 앞에는 1가공직장 김원호, 문대옥, 2가공직장 김광수, 자수작업반 박영옥, 제단직장 김인숙공무들이 서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들은 올해에 편직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년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이들이 추켜든 혁신의 봉화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리워주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고조의 앞에는 1가공직장 김원호, 문대옥, 2가공직장 김광수, 자수작업반 박영옥, 제단직장 김인숙공무들이 서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들은 올해에 편직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년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이들이 추켜든 혁신의 봉화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리워주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고조의 앞에는 1가공직장 김원호, 문대옥, 2가공직장 김광수, 자수작업반 박영옥, 제단직장 김인숙공무들이 서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들은 올해에 편직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년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이들이 추켜든 혁신의 봉화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리워주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고조의 앞에는 1가공직장 김원호, 문대옥, 2가공직장 김광수, 자수작업반 박영옥, 제단직장 김인숙공무들이 서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들은 올해에 편직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년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이들이 추켜든 혁신의 봉화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리워주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고조의 앞에는 1가공직장 김원호, 문대옥, 2가공직장 김광수, 자수작업반 박영옥, 제단직장 김인숙공무들이 서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들은 올해에 편직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년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이들이 추켜든 혁신의 봉화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리워주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고조의 앞에는 1가공직장 김원호, 문대옥, 2가공직장 김광수, 자수작업반 박영옥, 제단직장 김인숙공무들이 서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들은 올해에 편직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년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이들이 추켜든 혁신의 봉화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리워주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고조의 앞에는 1가공직장 김원호, 문대옥, 2가공직장 김광수, 자수작업반 박영옥, 제단직장 김인숙공무들이 서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들은 올해에 편직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년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이들이 추켜든 혁신의 봉화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리워주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고조의 앞에는 1가공직장 김원호, 문대옥, 2가공직장 김광수, 자수작업반 박영옥, 제단직장 김인숙공무들이 서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들은 올해에 편직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년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이들이 추켜든 혁신의 봉화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리워주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고조의 앞에는 1가공직장 김원호, 문대옥, 2가공직장 김광수, 자수작업반 박영옥, 제단직장 김인숙공무들이 서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들은 올해에 편직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년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이들이 추켜든 혁신의 봉화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리워주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고조의 앞에는

# 백두의 행군길 끝까지 이어가리

풀잎이 이어지고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강령군은 강성대국건설대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을 천배백배 폭발시키고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김일성조선의 역사가 특기할 대번혁의 해로 빛내게 하는 크나큰 고무적기지로 되고있다.

우리 조국의 강성병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백두의 행군길을 열어 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자적을 마음속으로 따르며 천만민은 지금으로부터 54년전 6월 백두의 혁명정신이 내재되는 백두산악강군으로 백두산자리에 있는 혁명전적지답사길을 개척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을 경건히 우러른다.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해 비약의 대고조적전진들을 쉬임없이 찾고 또 찾으면서 우리 장군님의 강령은 곧이거써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나래치도록 하기 위하여 백두 불굴의 정신력으로 헤치시던 백두의 행군길과 맞닿아있는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전통들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 이것이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적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길이며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키고 주체혁명위업을 확고히 계승발전시키는 길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10대의 시절에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한 신념과 의지로 백두산자리에 혁명전적지답사길을 개척하신것은 영웅사적사적장기였다.

주제 45 (1956)년 6월 5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답사행군을 이끄시고 보천보와 삼지연, 리명수일대의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첫 조직적인 답사행군을 진행 하시였다.

이날은 《지원》의 송호한 사상을 내포하고 조직독립을 위하여 투쟁하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30년이 되는 날이였다.

그날 역사적인 행군길에 나서시며 김형직선생님의 행색이 판공되어있는 《지원》의 사상으로 심장을 울려주시고 10대의 시절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맹세를 다지며 《광복의 천리길》에 나서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모습도 송영히 그려보시였을 경애하는 장군님, 우리 혁명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그때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는 결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였다.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어 백두의 설한공중에서 성장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 내리실수 있는 대용단이고 위대한 발기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새겨져있는 로정을 따라 직접 행군도 해보면서 수령님의 령도따라 항일유격대원들이 얼마나 싸워주신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싸워오셨는지의 승리를 가져왔는지 하는것을 배우자!

이것이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답사행군의 목적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발기를 적극 지지해주시였다.

우리 나라 속담에 《첫 새벽문을 열면 오복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다. 물론 한가정의 새벽문을 여는것은 그리 힘든것이 없다. 하지만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나라의 첫 새벽문을 열고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초행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의지로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찬 일로 되는것이 다. 혁명전적지에 대한 첫 답사가 바로 그렇다고 생각한다. 초행길 인것만큼 굳게 마음을 먹고 한번 걸어야 한다. ...

혁명의 요구, 인민의 지향을 통찰하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할 줄은 결심한 백두산자리에 혁명전적지답사길을 개척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 하신 우리 수령님의 뜻깊은 그 말씀.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당부를 새겨안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답사행군들에게 혁명전적지답사를 보충 원칙이나 야영처럼 생각하여서는 안된다고, 우리는 김일성원수님께서 몸소 걸으신 발자취를 따라 혁명전적으로 우장차기 위하여 행군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서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모습은 항일의 나날 청봉밀영에서 엄격하고 정면으로 맞서싸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목숨으로 옹호고수하신 백두산자락 김형직선생님의 모습 그대로이시였다.

항일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영원히 빛내시려는 절세의 위인의 결사의 신념과 의지를 새겨놓은 답사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도 답사단을 이끄시고 유서깊은 혁명전적지 보천보에 도착하시였다.

마중나온 군의 책임일꾼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주소에서 피로를 푸신 다음 답사를 하시였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적지를 답사하러 왔는데 어떻게 주소까지 쉬게 하겠다 하시며 먼저 답사행군에 참가한 학생들과 광강도인의 일꾼들에게 혁명전적지들과 혁명유적유물들을 다 찾아내고 보천보와 삼지연을 비롯한 혁명전적지들을 더 잘 꾸러미 혁명전적지 답사로를 잘 보전보수하며 백두산마루까지도 함께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은 또 얼마나 가슴뜨거웠는가.

백두산자리에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끝마치신 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는 이번이 혁명전적지들을 답사하면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위대한가 하는데 대하여 깊이 느끼고있습니다. 혁명전적지를 답사

하면 많은것을 배우게 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산자리에 혁명전적지답사길을 개척하신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따라배우며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역사적사건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산자리에 혁명전적지답사길을 개척하시므로써 혁명전적지에 대한 조직적답사가 시작되였고 혁명전적지답사사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의 시련이 열리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이 더욱 활발히 벌어지게 되였다.

백두산자리에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에 대한 답사길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뜻이 이어있는 혁명의 길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백두산자리에 혁명전적지답사길을 개척하신 불멸의 그 거룩한 자취를 떠나 이제 꽃이 피어있는 혁명의 명맥을 생각할수 있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산자리에 혁명전적지답사길을 개척하신 불멸의 업적과 더불어 주체의 혁명전통은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되게 하고 혁명의 대를 잇게 하여나갈 수체형의 피어남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불태의 혁명대오가 자라날수 있는 것 아니던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우리 혁명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오늘도 백두산자락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인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에서 지휘하고계신다.

신군령의 거룩한 자취어린 백두의 행군길따라 사회주의조선이 나아간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주체의 혁명전통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상한 강령 정신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사회주의강성대국의 평마루를 향하여 백두의 행군길을 영원히 이어갈것이다.

본사기자 김 준 혁

한편 많은것을 배우게 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산자리에 혁명전적지답사길을 개척하신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따라배우며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역사적사건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산자리에 혁명전적지답사길을 개척하시므로써 혁명전적지에 대한 조직적답사가 시작되였고 혁명전적지답사사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의 시련이 열리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이 더욱 활발히 벌어지게 되였다.

백두산자리에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에 대한 답사길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뜻이 이어있는 혁명의 길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백두산자리에 혁명전적지답사길을 개척하신 불멸의 그 거룩한 자취를 떠나 이제 꽃이 피어있는 혁명의 명맥을 생각할수 있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산자리에 혁명전적지답사길을 개척하신 불멸의 업적과 더불어 주체의 혁명전통은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되게 하고 혁명의 대를 잇게 하여나갈 수체형의 피어남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불태의 혁명대오가 자라날수 있는 것 아니던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우리 혁명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오늘도 백두산자락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인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에서 지휘하고계신다.

신군령의 거룩한 자취어린 백두의 행군길따라 사회주의조선이 나아간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주체의 혁명전통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상한 강령 정신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사회주의강성대국의 평마루를 향하여 백두의 행군길을 영원히 이어갈것이다.

본사기자 김 준 혁

##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는 길에서

### 자랑할 만한 공장

엔제인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함경북도의 한 수직관공장을 돌아보실 때였다.

현장에서는 한창 수직관이 생산되고있었는데 놀라운 정도로 소음이 적었다. 기대공도 2명뿐이였다. 생산공정들이 현대적이라는것을 대담 알수 있었다. 더우기 자랑스러운것은 수입원료가 아니라 2.8비날론원료가업소에서 생산하는 열화비닐로 수직관을 생산하는 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단히 만족해하시며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공장이 아주 멋있다고, 생산공정들이 현대화되고 생산문화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자랑할만한 공장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가지 규격의 수직관과련된부속관들을 공장자체로 생산하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며 앞으로 공장에서 수직관생산에 적극 늘어 건설사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할때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 몸소 찾아주신 명소

주제 92 (2003)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장수산유원지를 찾으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유원지안내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별관로정을 답사하시면서 굽이굽이마다 뜨거운 사람의 자취를 수놓으시였다. 그래서 내음을 지나 다섯굽이 휴식터앞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한동안 여섯굽이의 기묘한 바위들과 명소들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자바위가 있다고 하시며 손을 들어 가리키시는데였다.

순간 경애하는 장군님을

### 제일 큰 기쁨

몇해전 1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겨울의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서도 장군님의 여러 단원들을 현지도하시면서 장정형동농장 토기작업반도 찾아주시였다.

이제에서는 토기총축사의 여러 호동들을 돌아보시고 종자주제, 수의방역문제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앞으로 토기뜨기를 더 잘할때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토기작업반을 돌아보시고 기쁨을 즐기시 때 농장일꾼이 길

진내 맞은편 동덕쪽을 가리켜 드리며 저 마을이 새로 꾸민 소제지마을이라는것과 거기서 살고있는 농장원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동안 마을을 바라보시더니 살림집을 몇몇개 잘 지었다고, 현대적으로 꾸민 살림집이 농장원들이 당의 은혜를 노래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있다는 말로 들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김 준 혁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현지지도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 전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현지도 40돐 기념보고회가 21일에 진행되었다.

보고회에는 백계로 강원도당 위원회 책임비서, 관계부서 일꾼들, 공장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이 전달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당과 수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기 위한 사업과 말걸친 혁명인무수업에서 특출한 성과를 이룩한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감사문을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감사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 59 (1970)년 6월 22일 몸소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찾으시어 나날이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영예군인들의 사업과 생활을 친어버이사람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현지도하신 때로부터 지난 40년간 공장 로동자들과 일꾼들은 불타는 열정을 안고 헌신적인 투쟁을 벌려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수많은 수직제품들을 사회주의건설장들과 사업부문에 보내주신 자랑찬 노력적위훈을 세웠다 하면서 감사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기술혁명을 다그칠때마다 당의 전투적소호를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받들고 인민군인들을 성실성의 원호하였으며 원산정년발전소와 중요건설장들에 수요하는 제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 공시기일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이 고결한 충성을 지니고 당과 수령의 혁명적 령도업적을 빛내며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는데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원산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엄봉진의 보고에 이어 지배인 한현일, 작업반장 최희수, 로동자 리용철이 토론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당중앙위원회 감사문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공장의 영예군인들이 혁명의 뜻을 계속 피워야 한다고 하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가슴깊이 새기고 자신들을 혁명적으로 단련하며 병사시절의 기풍으로 일하고 생활할때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당의 선군병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헌신을 일으킴으로써 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맞이하며 강성대국건설을 앞당기는데 기여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의 앞길을 밝혀주는 고귀한 지침

농촌에서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농민들의 생활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앨때 대한 문제 등 사회주의농촌레제를 중국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밝혀졌다.

우리 덕천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0년간 농촌문제해결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로작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그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데로만 하면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을 강성대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전환시키고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해결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안아올수 있다는 것을 심장으로 결감하였다.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은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농업생산에서 성과의 비결은 농촌기술혁명의 4대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여 생산력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농촌기술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적은 로력과 재력을 들이면서 더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로작에서 농촌기술혁명의 4대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기에서 기본은 수리화, 기계화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시의 농장들은 산간지대

에서 땅이 척박하고 지력이 높지 못하다. 이런 조건에서 수리화를 실현하지 못하고서는 알곡수출을 높일수 없다. 우리는 로작의 사상을 받들고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수리화실현을 알곡생산에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기본로선으로 틀어쥐고 이 사업을 근거있게 벌려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수리화정책에 의하여 우리 시의 모든 농장들에서는 이미 개발수확기가 확립되었다. 우리는 농업생산을 위한 이러한 토대들이 더 큰 은을 내도록 조직적으로 짜고드는 한편 당의 의도를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전기를 전천후로 사용하지도 않는 농사를 안건하게 지어주실 수 있는 자연요소를결집공사를 대담하게 착진하고 내밀었다. 이와 함께 트랙터들과 자동차들 비롯한 농기계들이 인건에서 가동할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놓도록 하였으며 각종 농기구를 자체로 만들어서 농업생산에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수리화, 기계화가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오늘 청송, 신성, 운흥, 형봉협동농장을 비롯한 한 시의 모든 농장들에서는 가을이 멀지않아 모르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현시대의 농사는 과학농사이다. 우리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사를 과학적으로 짓기 위한 사업에도 큰 관심을 돌리었다. 시험농장경영위원회와 농장들이 컴퓨터에 의한 경영관리체계를

세우고 그를 통하여 새 농업기술이 일기조건 등을 제때에 확보하도록 하였다.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고 새로운 영농방법,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 모든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농사의 과학화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농업생산을 높일수 없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최근 10여년간 어려운 조건에서 오 해마다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었던 바로 로작의 사상대로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해온 결과이다.

농민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줄이는데는 사회주의농촌레제 관철이 관건이다. 이와 함께 트랙터들과 자동차들 비롯한 농기계들이 인건에서 가동할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놓도록 하였으며 각종 농기구를 자체로 만들어서 농업생산에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수리화, 기계화가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오늘 청송, 신성, 운흥, 형봉협동농장을 비롯한 한 시의 모든 농장들에서는 가을이 멀지않아 모르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현시대의 농사는 과학농사이다. 우리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사를 과학적으로 짓기 위한 사업에도 큰 관심을 돌리었다. 시험농장경영위원회와 농장들이 컴퓨터에 의한 경영관리체계를

나서도록 하였다.

우리가 농사일을 하면서 모든 농장마을들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러나간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비롯하여 당의 위대한 수령님의 령현을 이 땅에 반드시 현실로 꽃피우려 한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고 시의 전제 농업근로자들을 문화혁명파업 수행에 적극 불러일으켰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의 사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모든 리소제자들은 물론이고 작업반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있다. 모든 농장들에 기와생산지들도 꾸리고 한해에 수십평의 살림집을 일떠세우기 위한 단계를 끝까지 벌리고있다. 신성, 청송, 명화, 구장협동농장은 비롯하여 모든 농장들의 살림집, 편의봉사시설들을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들이 계획적으로 추진되어 옛 모습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신성협동농장의 제 1작업반과 제 6작업반을 비롯하여 모든 작업반들의 농업과학기술지식선진실습을 힘있게 벌려왔다. 우리 경영위원회에서는 경영관리체제를 새롭게 세우는것과 함께 모든 농장의 관리일꾼들과 작업반장, 분조장을 비롯한 초급일꾼들이 농장원들을 적극 발동하여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도록 하였다. 그 과업에 우리는 일꾼들이 자기 맡은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일떠서 이신직직의 모범



어버이수령님께서 혁명의 천리길에 남기신 불멸의 자취를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혁명의 천리길 개척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찍음

### 구성방직공장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선군정치와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선군정치와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선군정치와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선군정치와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선군정치와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선군정치와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선군정치와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선군정치와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선군정치와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선군정치와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선군정치와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선군정치와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







#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 흑백을 전도하는 강도적궤변

**여러 나라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프랑스에서는 친선모임이, 인도네시아에서는 해설모임과 강연회가, 러시아에서는 영화감상회가 11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들에는 프랑스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프랑스로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들에는 프랑스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프랑스로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기념행사 진행**  
유익한 담보로 되고있다.

하기에 우리는 통일법에서 사회주의집권당들이 편이 불필필 때에도 조선로동당이 추호도 흔들림없이 자기의 불패성과 위력을 과시할수 있도록 이끌어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그는 끝으로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 드위 미트라 빠르까씨와 사장은 김정일영도자께서 지난 46년간 김일성주석의 당건설위업을 훌륭히 계승하시어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게 해주신 김정일동지를 높이 칭송하고있다.

그에게서는 강력한 사상리론 활동으로 당건설과 당활동,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지엄으로 되는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고있다.

김정일영도자께서 총비서로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앞으로 필승불패할것이다.

인도네시아 라자랄리 누사 짜머를랑회사 사장과 씨나르 안솔회사 부사장은 김정일각하의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조선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정지령로

이다. 그이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포위속에서도 조선의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할수 있게 하는 만능의 보검이다. 선군정치 밑에 자기위업에 대한 굳은 신심과 만만한 배짱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조선인민의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고 격찬하였다.

로씨야 스킨로이마슈인도르 그회사 사장은 조선로동당이 오늘과 같이 복잡한 경제속에

서도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고수하고있는것은 기적중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조선식 사회주의는 불패의 군례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 김정일동지의 선군명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강성대국건설위업과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 《당창건기념탑》이 상영되었다.

신문은 글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에서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사상사업을 앞세워야 할 필요성과 로동계급의 당의 사상사업의 본질,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사업의 기본임무와 원칙을 명백히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서술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이 불패의 사회주의로부 로 자기의 존엄을 떨쳐가고있는것은 바로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시신 사상중시로서의 정당성을 실증해주고있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있으며 미래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내어 이어 계승발전시키 나가 위하여 전체 인민을 주석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도록 사회주의의 전위투사로 준비시키시나간다.

같은 날 《나호드겐스키 라보치》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정을 모시고 우리 당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와 인민애도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어 온 경애하는 장군님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한편 《보지짜야》 제3호는 우리 청년들이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데 대하여 서술한 《현대화는 청년들의 위업》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다사하고 수다스러운 너의 입에서는 쓸말이 별로 나오지 않는 법이다. 이런 부류의 너자들은 검은것도 흰것이라고 몰알 우겨대군 속하는 너자라고 말할수 있다.

얼마전 그는 중앙아메리카나라들을 행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가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경고하면서 이런 사실을 세계에 《리해시켜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였다. 그는 제 집안에 앉아 우리를 헐뜯다 못해 이제는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시비증상하고 헐뜯음을 늘어놓았다.

속임은 변하다. 다른 나라들로부터 미국의 반공적대시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려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 남조선의 《천안》호침몰사건으로 하여 수세에 몰리고있다. 국제적으로 이 함침몰사건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가고있으며 미국의 조국파, 남조선파라는 규탄의 목소리도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

미지배층이 남조선괴뢰도당을 부추겨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사회에 회부하고 그 무엇을 이끌어내려 하지만 저들의 뜻대로 잘되지 않고있다. 한마디로 《천안》호침몰사건을 계기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포위를 강화하고 어찌보던 오바마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이 거꾸로 파산시킬 위기사태에 직면하였다.

이에 제일 바빠났건이 미국의 대외정책을 책임진 힐러리이다. 그래서 그가 여러 나라들의 지지를 그러모으기 위해 치마바람을 일으키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우리에게 대한 악담을 퍼붓고있는것이다.

우리는 너성일만을 존중한다. 그러나 힐러리가 아무리 너성이라고 하여도 미국주관파의 자격을 가지고 현실을 거꾸로 외곡하며 우리를 헐뜯는 일을 용납할수 없다.

힐러리가 우리 나라를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한것은 그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강도적인 궤변이다.

누가 정작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되고있는가? 그것은 바로 미국이다.

올해초에 우리가 내놓은 조선반도평화보장 제제구상을 위한 공명정대한 중재제안에 미국은 《키 리콜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로 대답해나갔다. 이것이 평화에 대한 판복한 위협으로 된다는데 대하여서는 논의할 여지가 없다.

1960년대에 있는 까리브해위기에 미국은 자기 나라 가까이 있는 쿠바에 미사일들이 설치된다고 하자 그것이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떠들면서 불난 강변에 맨 소 날뻐 못 하였다. 이 룬법대로 보면 미국이 조선전선에 대규모전략집단을 끌어들이고 남조선괴뢰파와 련합하여 핵전쟁연습을 벌인것이 우리에게 대한 위협,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남조선의 《천안》호는 이 핵전쟁연습의 가련한 희생물이다. 이것은 《천안》호침몰사건의 책임이 애초부터 미국에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더우기 미국이 남조선과 련합하여 서해상에서 또다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리려 하는것은 위험한 평화파괴행세의 발로이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임의의 시각에 전면전으로 넘어갈수 있는 협박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남조선괴뢰파와 무모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려 하는것은 제2의 조선전쟁을 터뜨리려는 기도로부터 달리 불수 없다.

조선반도뿐 아니라 미국이 발을 들이려는 다른 지역들에서도 평화와 안전이 위협, 파괴당하고있다.

합력전제 의하면 미국의 특수부대들이 세계 75개 나라들에 전개되어 각종 살인, 랑치, 파괴행위들을 벌리고있다. 현시기 《반테로》의 명목에 감행되고있는 이런 행위들은 이전 부위정전때보다 더 강화되고있다.

미사일요격시험들을 계속 진행하고 여러 나라들의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미사일방위체제를 구축하고있는것도 그렇고 대국들의 코밀에까지 미군을 전방전개하고있는것도 그렇고 미국의 행동들은 모두가 평화를 위협하고 안전을 파괴하는것뿐이다.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과 피의 장본인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일은 뼈뿔이게도 우리는 바로 불라고 했다. 우리는 미국의 집권자들이 흑백을 전도하는 언동을 그만둘것을 충고한다.

리 경 수

**우리는 조선인민의 편에 서있을것이다**  
**인디아정당 성명 발표**

전인디아정당중앙집행위원회는 미국과 리명백적제국주의 대조선인살상책동을 규탄하여 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조선에 반대하는 책동의 일일로서 《천안》호침몰사건을 조국과 남조선 《조선과 평화》라는것을 발표하였고 한편하여 조선의 원칙적립장을 밝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방위위원회 대변인성명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시종일관 외세에 의하여 분열된 나라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에게 굳은 연대성을 보인다.

**중국 《환구시보》의 글**

최근 중국의 《환구시보》가 남조선괴뢰당국의 《천안》호침몰사건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표시하는 중국군사전략문제전문가의 글을 실었다.

《환구시보》에 의하면 중국의 전문가가 《천안》호는 어찌에 맞아 침몰되었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당국이 이른바 《조사결과》라는것을 유엔안보리사회에 회부한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천안》호사건은 이미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초점으로 되었으며 조선반도의 정세에도 소홀히 할수 없는 충격을 가하였다. 사건발생후 이번 침몰의 원인에 대하여 여론이 분분하고 추적이 복잡하다. 대체로 내부사람에 의한 파괴설, 기술고장설, 좌초설, 남조선, 미국이 부설한 기뢰복발설, 《조선어뢰공격》설, 미국남조선군사연습중 오발설, 미국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이다. 그러나 대체로 남조선측이 제공한 증거만으로 볼 때 우리는 《천안》호가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결론을 명백하게 도출해내기가 어렵다.

중국의 전문가가 계속하여 적어도 《어뢰공격》설의 배후에는 풀어야 할 일련의 의문들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적하였다.

무엇보다도 《천안》호가 침몰될 때 미국과 남조선측이 아니라 사건발생해역에 반

**로씨야 신문들 특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인문들이 특집하였다.

《빠트리오트》 제2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신 사진과 경애하는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루어지고있다.

신문은 지난 40여년간 조선인민이 거둔 모든 승리는 김일성동지의 영도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있다. 신문은 《사회주의와 평화의 기수》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의 권위와 필승불패의 위력의 원천은 인민대중과의 혈연적연결에 있으며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은 조선로동당이 지침으로 삼고있는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김일성동지의 파우명을 자신의 모든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수호의 승리를 위한 열의로 간주하고계신다.

김정일동지는 세련된 정치가, 위대한 사상리론가,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국제로동운동과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공인된 지도자, 사회적 및 민족적해방

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실천가이다. 그이께서는 전담이 인민들속에 들어갈것을 요구하시며 몸소 그 실천적모범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선군의 원리를 밝혀주시었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루어지고있다.

신문은 지난 40여년간 조선인민이 거둔 모든 승리는 김일성동지의 영도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있다. 신문은 《사회주의와 평화의 기수》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의 권위와 필승불패의 위력의 원천은 인민대중과의 혈연적연결에 있으며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은 조선로동당이 지침으로 삼고있는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김일성동지의 파우명을 자신의 모든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수호의 승리를 위한 열의로 간주하고계신다.

김정일동지는 세련된 정치가, 위대한 사상리론가,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국제로동운동과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공인된 지도자, 사회적 및 민족적해방

미국과 서방의 제재실행에 보복할것이라고 경고

이란국회의 의장 알리 라라지 니가 16일 한 텔레비전방송 회의에에서 미국과 서방이 자기 나라에 대한 제재실행을 실행하는 경우 보복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최근 미국과 서방이 유엔의 제재결의에 따라 이란의 비행기와 선박들을 검색하려고 획책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렇게 하는 경우 이란도 해당한 나라들에 대해 똑같은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대응조치는 나라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미국과 서방의 제재실행에 보복할것이라고 경고

이란국회의 의장 알리 라라지 니가 16일 한 텔레비전방송 회의에에서 미국과 서방이 자기 나라에 대한 제재실행을 실행하는 경우 보복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최근 미국과 서방이 유엔의 제재결의에 따라 이란의 비행기와 선박들을 검색하려고 획책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렇게 하는 경우 이란도 해당한 나라들에 대해 똑같은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대응조치는 나라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전력증산조치

파키스탄에서 긴장한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5개년 전력증산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까지 1000만kW의 전력생산능력을 더 조성하기 위해 석탄 등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게 된다.

15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어린이교육사업

브라질에서 학령전어린이교육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최근 이 나라 정부는 학교들에 2016년까지 현재 4살미만의 모든 어린이들을 교육대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헌법수정안을 채택하고 이 사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또한 학령전어린이들을 위한 1700여개의 교육시설들을

구려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있다 한다.

금융부문 통제사업 강화

베네수엘라에서 금융부문에 대한 통제사업을 강화하고있다.

14일 이 나라의 한 정부부리는 정부가 또 하나의 사영은행에 대한 통제조치를 취함으로써 지난해 11월이래 총 12개의 사영금융기관들이 국가의 통제하에 운영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나라의 재정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협조

쿠바와 까라르가 9일 보건 부문에서 호상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날 수리아와 에리트레 두 나라사이의 경제연계를 강화하고 상품류통을 촉진시킬데 관한 협조문진들을 채택하였다.

수출 증가

요르단에서 올해 1.4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2% 증가하였다.

이 기간 특히 농업과 화학비료 수출이 특히 늘어났다 한다.

16일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등 생산

칠레에서 올해 3월에 동생 산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 증가되었다.

나라에서는 올해 동생생산량을 지난해보다 14.4% 더 늘릴것을 계획하고있다.

본사기자

**중국 《환구시보》의 글**

최근 중국의 《환구시보》가 남조선괴뢰당국의 《천안》호침몰사건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표시하는 중국군사전략문제전문가의 글을 실었다.

《환구시보》에 의하면 중국의 전문가가 《천안》호는 어찌에 맞아 침몰되었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당국이 이른바 《조사결과》라는것을 유엔안보리사회에 회부한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천안》호사건은 이미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초점으로 되었으며 조선반도의 정세에도 소홀히 할수 없는 충격을 가하였다. 사건발생후 이번 침몰의 원인에 대하여 여론이 분분하고 추적이 복잡하다. 대체로 내부사람에 의한 파괴설, 기술고장설, 좌초설, 남조선, 미국이 부설한 기뢰복발설, 《조선어뢰공격》설, 미국남조선군사연습중 오발설, 미국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이다. 그러나 대체로 남조선측이 제공한 증거만으로 볼 때 우리는 《천안》호가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결론을 명백하게 도출해내기가 어렵다.

중국의 전문가가 계속하여 적어도 《어뢰공격》설의 배후에는 풀어야 할 일련의 의문들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적하였다.

무엇보다도 《천안》호가 침몰될 때 미국과 남조선측이 아니라 사건발생해역에 반

공화국의 《어뢰공격》에 있는 것처럼 날조하여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사회에 억지로 부추린 남조선당국자들의 반공화국책동을 반대배격하며 강력히 단죄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전에 채택발표된 력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이 성실히 리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언제나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편에 서있을것이다.

본사기자

**발광적인 군비증강책동**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간섭과 침략전쟁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군비증강책을 발광적으로 매어달리고 있다.

16일 미국방장관은 국회청문회에서 미국집권자가 제기한 추가전정비비용지출안을 시급히 승인할것을 국회에 요구하면서 그것이 비준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전시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떠벌었다.

미국집권자가 요구한 추가전정비비용은 330억US\$에 달한다.

본사기자

**특대형원유류출사태를 둘러싼 미영의 대립**

미군남부의 메히프란에서 일어난 원유류출사고에 문제가 드러나고 미영사이에 분쟁 비난전이 격화되고있다.

적립비와 같이 지난 4월 메히프란에서 영국의 원유기업 제인 브리트리쉬 페트롤리엄(BP) 회사가 시추장비를 하다가 시추시설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하여 메히프란해역의 깊이 1500m 해저에서는 매일 수백만L에 달하는 원유가 계속 류출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6월초까지만 하여도 1억 5000만L의 원유가 상에 달하는 원유가 류출되었으며 메히프란해역을 오염시켰다. 이것은 1991년에 페르사만해역으로 파편된 쿠웨이트 유전에서 일어난 원유류출량과 1989년에 미국의 알라스카 외해에서 발생한 미국력사상 최대의 원유류출사고(약 4200만L)를 훨씬 통과한것으로 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그 책임을 영국회사에 떠넘기 위한 일대 캠페나가 벌어지고있다.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메히프란원유류출사고는 《9.11 테러》와 같다고

나를이 핵에너지기를 평화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융합한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이란의 핵계획을 지지하는 기구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팔레스타인민족당국 위무사 리야드 알 말리키가 16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분쇄책동을 단호히 규탄하였다.

가자지대 주민들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하면서

구하여도 된다.

영국의 언론들도 미국의 비난대상으로 된 BP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수상이 나서 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런데 영국수상이 이번 사태를 두고 미국의 좌절감을 리해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립장을 두둔하는듯 한 발언을 한것이 문제로 되어 영국내에서 여론이 비발작 구지에 몰리고있다.

영국의 경제계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이 저를 두고 쏠리는 공격의 화살을 BP회사가 들리려 하고있다고 까발리고있다.

영국고용주협회의 한 고위인물은 원유류출사태를 놓고 미행정부에 계속 BP회사를 끌고 늘어놓아도 부장적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지금 영국사람들속에서는 여론화해 되면 이번 사건이 영국의 잘못에 의한것으로 둔갑하면서 영국회사들에 대한 편견이 조성될수 있다고 오바마대통령이 발언을 심중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오바마가 최근 메히프란원유류출사고에 대해 《벌어먹은 구멍을 막아버려라.》라고 신랄적인 발언을 하여 영국사람들의 비웃음을

자아내고있다.

영국의 한 경제분석가는 이번 사태를 지난 시기 한 미국 석유회사가 영국에서 사고를 지질렀을 때의 사건과 비교하면서 메히프란원유류출사태를 놓고 대응하는 미국의 태도는 병적인것이라고 조소하였다.

이번 메히프란원유류출사태는 영국과 미국경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BP회사는 거대기업의 하나로서 영국과 미국에서 수만명의 로동자들을 고용하고있으며 회사수익의 39%를 미국인들이 소유하고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미행정부가 BP회사를 공격하면 할수록 영국경계는 물론 미국경계에도 부정적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 영국사람들속에서는 여론화해 되면 이번 사건이 영국의 잘못에 의한것으로 둔갑하면서 영국회사들에 대한 편견이 조성될수 있다고 오바마대통령이 발언을 심중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오바마가 최근 메히프란원유류출사고에 대해 《벌어먹은 구멍을 막아버려라.》라고 신랄적인 발언을 하여 영국사람들의 비웃음을

한편서 이 회사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있다.

미국과 영국사이에 호상 비난전이 맹렬해지고있는 속에서도 오바마행정부가 무능력하다는 여론이 확대되고있다.

최근 오바마는 원유류출사태와 관련하여 영국이 BP회사의 총경영자를 해버리지 않았고 그 불만을 소리를 하면서 자기라던 그를 파직시켰을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원들은 오바마에게 영국원유회사에만 책임을 밀지 말고 똑똑한 기업관리체제를 세우라고 이데이고있다. 그들은 오바마가 영국회사를 계속 공격하는것은 오히려 진행될 국외경쟁을 부추기고 있는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들은 메히프란에서의 원유류출사태로 하여 영국과 미국사이에의 마찰이 커지고있으며 오바마행정부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채 일 출

**중국 《환구시보》의 글**

최근 중국의 《환구시보》가 남조선괴뢰당국의 《천안》호침몰사건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표시하는 중국군사전략문제전문가의 글을 실었다.

《환구시보》에 의하면 중국의 전문가가 《천안》호는 어찌에 맞아 침몰되었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당국이 이른바 《조사결과》라는것을 유엔안보리사회에 회부한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천안》호사건은 이미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초점으로 되었으며 조선반도의 정세에도 소홀히 할수 없는 충격을 가하였다. 사건발생후 이번 침몰의 원인에 대하여 여론이 분분하고 추적이 복잡하다. 대체로 내부사람에 의한 파괴설, 기술고장설, 좌초설, 남조선, 미국이 부설한 기뢰복발설, 《조선어뢰공격》설, 미국남조선군사연습중 오발설, 미국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이다. 그러나 대체로 남조선측이 제공한 증거만으로 볼 때 우리는 《천안》호가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결론을 명백하게 도출해내기가 어렵다.

중국의 전문가가 계속하여 적어도 《어뢰공격》설의 배후에는 풀어야 할 일련의 의문들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적하였다.

무엇보다도 《천안》호가 침몰될 때 미국과 남조선측이 아니라 사건발생해역에 반

공화국의 《어뢰공격》에 있는 것처럼 날조하여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사회에 억지로 부추린 남조선당국자들의 반공화국책동을 반대배격하며 강력히 단죄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전에 채택발표된 력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이 성실히 리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언제나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편에 서있을것이다.

본사기자

**발광적인 군비증강책동**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간섭과 침략전쟁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군비증강책을 발광적으로 매어달리고 있다.

16일 미국방장관은 국회청문회에서 미국집권자가 제기한 추가전정비비용지출안을 시급히 승인할것을 국회에 요구하면서 그것이 비준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전시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떠벌었다.

미국집권자가 요구한 추가전정비비용은 330억US\$에 달한다.

본사기자

**특대형원유류출사태를 둘러싼 미영의 대립**

미군남부의 메히프란에서 일어난 원유류출사고에 문제가 드러나고 미영사이에 분쟁 비난전이 격화되고있다.

적립비와 같이 지난 4월 메히프란에서 영국의 원유기업 제인 브리트리쉬 페트롤리엄(BP) 회사가 시추장비를 하다가 시추시설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하여 메히프란해역의 깊이 1500m 해저에서는 매일 수백만L에 달하는 원유가 계속 류출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6월초까지만 하여도 1억 5000만L의 원유가 상에 달하는 원유가 류출되었으며 메히프란해역을 오염시켰다. 이것은 1991년에 페르사만해역으로 파편된 쿠웨이트 유전에서 일어난 원유류출량과 1989년에 미국의 알라스카 외해에서 발생한 미국력사상 최대의 원유류출사고(약 4200만L)를 훨씬 통과한것으로 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그 책임을 영국회사에 떠넘기 위한 일대 캠페나가 벌어지고있다.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메히프란원유류출사고는 《9.11 테러》와 같다고

구하여도 된다.

영국의 언론들도 미국의 비난대상으로 된 BP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수상이 나서 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런데 영국수상이 이번 사태를 두고 미국의 좌절감을 리해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립장을 두둔하는듯 한 발언을 한것이 문제로 되어 영국내에서 여론이 비발작 구지에 몰리고있다.

영국의 경제계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이 저를 두고 쏠리는 공격의 화살을 BP회사가 들리려 하고있다고 까발리고있다.

영국고용주협회의 한 고위인물은 원유류출사태를 놓고 미행정부에 계속 BP회사를 끌고 늘어놓아도 부장적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지금 영국사람들속에서는 여론화해 되면 이번 사건이 영국의 잘못에 의한것으로 둔갑하면서 영국회사들에 대한 편견이 조성될수 있다고 오바마대통령이 발언을 심중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오바마가 최근 메히프란원유류출사고에 대해 《벌어먹은 구멍을 막아버려라.》라고 신랄적인 발언을 하여 영국사람들의 비웃음을

한편서 이 회사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있다.

미국과 영국사이에 호상 비난전이 맹렬해지고있는 속에서도 오바마행정부가 무능력하다는 여론이 확대되고있다.

최근 오바마는 원유류출사태와 관련하여 영국이 BP회사의 총경영자를 해버리지 않았고 그 불만을 소리를 하면서 자기라던 그를 파직시켰을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원들은 오바마에게 영국원유회사에만 책임을 밀지 말고 똑똑한 기업관리체제를 세우라고 이데이고있다. 그들은 오바마가 영국회사를 계속 공격하는것은 오히려 진행될 국외경쟁을 부추기고 있는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들은 메히프란에서의 원유류출사태로 하여 영국과 미국사이에의 마찰이 커지고있으며 오바마행정부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채 일 출

**경제 침체, 실업률 증대**

미상무성은 최근 조사료를 인용하여 올해 5월에 전국적으로 소매업체들에서 판매량이 전달보다 1.2% 감소 소되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경제침체로 주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졌고 10년동안의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 한다.

17일 그리스국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본사기자

어 들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스에서 올해 1.4분기에 실업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더 늘어났다.

11.7%에 달하였다.

이로써 실업률은 지난 10년동안의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 한다.

17일 그리스국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본사기자